

2008년 하반기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2008년 제4회 한·중경제포럼

1. 주제 : 2008년 상반기 중국경제 형세 분석과 하반기 전망
2. 일시 : 2008. 7.16(수) 16:00~18:00
3. 발표자 : 거시경제연구원 왕이밍(王一鳴) 상무부원장

1. 최근 중국경제 현황 및 변화

가. 기초여건 안정세

- 최근 중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으나 기초적인 여건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2008년 초 폭설과 5.12 대지진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저축률(현재 48% 수준)과 투자율 등 경제의 기초여건은 안정적인.
- 또한 중국의 노동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도시 인프라 촉진을 위한 중국 내 10여 개 도시의 지하철 건설, 지진복구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은 경제성장을 견인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은 글로벌화에 적극 참여하고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

<표 1> 주요 중국경제 지표

지표		2007년		2008년			
				상반기		연간(전망치)	
		금액 (억 위안)	증가율 (%)	금액 (억 위안)	증가율 (%)	금액 (억 위안)	증가율 (%)
GDP		249,530	11.9	130,619	10.4	295,097	10.3
	1차 산업	28,095	3.7	11,800	3.5	32,682	3.4
	2차 산업	121,381	13.4	67,419	11.3	148,333	11.5
	3차 산업	100,054	12.6	51,400	10.5	114,082	10.7
공업 생산	규모이상 공업 기업 생산	-	18.5	-	16.3	-	16.4
	경공업	-	16.3	-	13.8	-	13.6
	중공업	-	19.6	-	17.3	-	17.2
투자	전사회고정자산투자	137,239	24.8	68,402	26.3	170,863	24.5
	도시고정자산투자	117,414	25.8	58,436	26.8	147,707	25.8
	부동산투자	25,280	30.2	9,519.3	31.9	32,990	30.5
사회소비품 판매액		89,210	16.8	51,043	21.4	105,892	18.7
수출입	수출(억 달러)	12,180	25.7	6,666	21.9	14,616	20.0
	수입(억 달러)	9,558	20.8	5,676	30.6	12,234	28.0
	무역수지(억 달러)	2,622	50.0	990	-11.8	2,382	-9.2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105	4.8	107.9	7.9	107.0	7.0
	공산품 출하가격지수	103	3.1	107.6	7.6	107.5	7.5
	원자재, 연료, 동력 구입 가격	104	4.4	111.1	11.1	110.5	10.5
통화량	M0	30,334	12.1	30,181	12.3	34,065	12.3
	M1	152,519	21.0	155,000	14.2	178,905	17.3
	M2	403,401	16.7	433,000	17.4	474,803	17.7

주: 1) GDP와 1, 2, 3차 산업 증가율은 가격변동 요인을 제거한 것이며, 나머지는 명목증가율임.

2) 2008년 부동산투자에 대한 통계치는 1월~5월까지임.

자료: 1) 국가신식중심, 현재 경제형세 분석과 하반기 경제형세 예측(当前经济形势分析和下半年经济走势预测), 2008.7

나. 긍정적 변화조짐

-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07년 11.9%, 2008년 1/4분기 10.6%, 2008년 상반기 10.4%를 기록. 이는 연초 중국정부가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 낮추고자 했던 목표에 부합하고 있음.
- 중국 여름곡물이 5년 연속 생산량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방의 가을 곡물도 풍작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주로 식품가격 상승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곡물생산량 증가는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투자, 소비, 수출 등 3대 수요 간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음.
- 중국의 2008년 6월 수출증가율은 2007년 동기대비 9.5%포인트 감소. 또한 투자율과 소비율 간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소비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바, 주택과 자동차, 통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되는 추세임.
-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주택과 자동차, 통신 등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서 24%로 증가
- 산업 구조조정이 일정한 성과를 거둬에 따라 철강, 비철금속 등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기계제조업, IT 등의 발전이 가속화됨.
- 기업이윤과 정부재정수입의 증가
- 원유 가격 상승 이후 석유가공 산업과 석탄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력부문 등 두 부문의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37개 업종의 기업 이윤은 2008년 1월 ~ 5월 사이 38.4% 증가

- 정부재정수입은 동기간 31% 내외 증가

2. 중국경제의 새로운 조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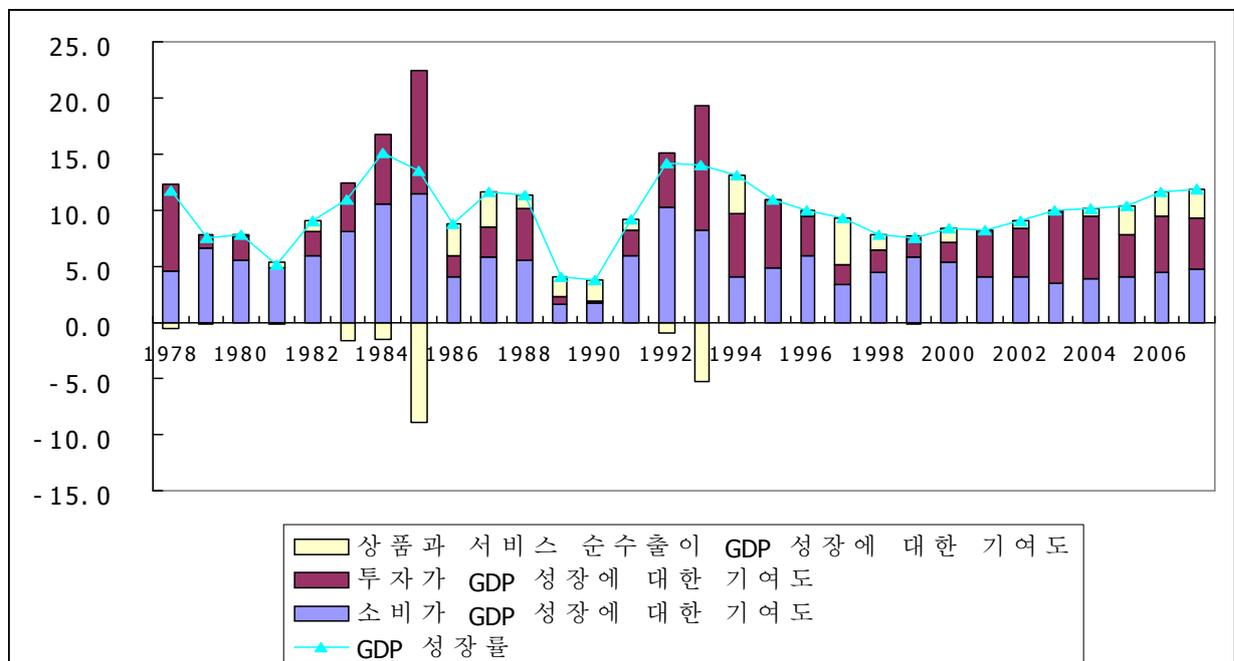
□ 중국경제는 지난 5년 동안 지속되었던 “고성장 - 저인플레이션”에서 점차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저성장 - 고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조정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 이 조정기는 2~3년 소요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첫째, 경제성장속도가 지난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10.8%)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국경제의 기초여건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9%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임.

<그림 1> GDP 성장률 및 소비, 투자, 순수출의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단위: %, %포인트)



자료: 국가통계국, 중국통계적요 2008

·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조정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8년 1/4분기 성장률은 10.6%로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2007년 3/4분기 12.2%→2007년 4/4분기 11.9%→2008년 1/4분기 10.6%)
- 둘째, 물가상승률이 지난 몇 년 간 평균 상승률인 2.6%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임.
 - 2008년에는 6.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2007년 물가상승률은 4.8%)
 - 2008년 곡물 풍작이 예상되어 소비자물가상승을 억제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생산자물가는 상승세를 지속
 - 국제유가 등 에너지가격의 상승, 노동비용 및 공업생산원가 상승 등이 물가상승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
- 셋째, 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
 - 2008년 대외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있어 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순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05년, 2006년, 2007년 각각 24.1%, 19.3%, 21.5%).
 - 2007년 무역흑자는 월 평균 200여 억 달러였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점차 그 폭이 감소
- 넷째, 기업이윤이 감소세를 유지함.
 - 지난 5년 동안 기업이윤은 연평균 약 30%였으나, 현재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기업이윤이 감소
- 중국경제가 향후 2~3년의 조정기를 거치는 것은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현재 중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조정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제거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환경에서 기업들이 기술향상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 신발, 섬유, 의류, 완구 등 노동집약적인 가공무역 산업의 구조조정 및 해외이전의 기회

3. 세계경제 변화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 학자들 사이에 미국 경제성장 향방을 두고 논의가 벌어지고 있음(L형, W형, V형).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대적인 기술혁신이 없다면 미국경제는 L형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큼.
- 향후 몇 년 세계경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첫째, 글로벌화에 따른 이익이 감소되기 시작함. 지난 5년 동안은 글로벌화의 황금시기로 중국 및 인도의 저가 노동력, 브라질과 러시아의 저렴한 자원 공급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평균 4.9%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3.6%에 그침.
 -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가져다 준 이득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바, 새로운 세계경제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할 시점에 다다름.
 - 최근 각국별로 글로벌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단계의 글로벌 양상이 세계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 둘째, 미국의 IT기술 파급효과가 약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기업이윤이 감소되고 생산성 제고 효과도 줄어들고 있음.
 - 셋째, 세계경제의 불균형 지속

□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수출 증가세 둔화

- 2008년 상반기 대미 수출 증가율은 전년(2007년 상반기 대미 수출증가율은 17.8%) 동기대비 8.9% 포인트 감소한 8.9% 기록. 대 EU 수출 증가율도 둔화

<표 2> 중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

(단위: 억 달러, %)

	2007년			2008년 상반기		
	수출액	증가율	비중	수출액	증가율	비중
총액	12,180.1	25.7	100	6,666.0	21.9	100
EU	2,451.9	29.2	20.1	1,370.2	27.0	20.6
미국	2,327.0	14.4	19.1	1,168.2	8.9	17.5
홍콩	1,844.3	18.8	15.1	906.5	7.8	13.6
일본	1,020.7	11.4	8.4	552.0	15.1	8.3
아세안	941.8	32.1	7.7	553.4	30.3	8.3
한국	561.4	26.1	4.6	357.8	36.0	5.4

자료: 상무부

- 각 국의 금리차로 인해 중국의 통화정책 조정이 어려워짐.

- 금리차로 인한 핫머니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조치가 쉽지 않음.

-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고와 재정수입 증가로 외부 충격을 완화시킬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나, 최근 부동산가격 및 주가 하락, 인민폐 환율 변동 등 여러 가지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

<질의·응답>

질문 1: 1) 중국 CPI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 중국의 경우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는 시차는?

답변 1:

- 1) CPI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임.
- 2) 과거 생산자물가 상승의 CPI에 대한 영향은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는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시기는 산업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됨. 최근 상당기간 동안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는 기업이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을 자체적으로 소화했기 때문임.

질문 2: 중국 부동산시장을 예로 들면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긴축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2~3년 기간의 경제조정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긴축정책의 지속을 의미하는가?

답변 2:

경제조정기는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조정기이며 개별적인 부동산시장에 조정기가 있다는 것은 아님. 실제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되고 있고 또 광저우, 쑤저우 등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 중국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피해를 원하지 않음. 이에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주택 구입 시 지불하는 선불금 비중을 낮추거나 주택대출금의 이자를 낮추는 등의 정책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질문 3: 올림픽 이후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심지어 경제경착륙을 우려하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답변 3:

중국경제 성장 둔화는 이미 2007년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올림픽 투자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음. 고투자율, 고저축률이 지속된다면 중국 경제는 당분간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경제성장기는 이어질 것임.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살펴보면 앞으로는 매우 큰 시장을 가지고 있어 성장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올림픽 개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중국 경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9%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큰 무리가 없음.

질문4: 1) 올림픽 이후 중국정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전망은?

2) 중국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유입된 핫머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가?

답변 4:

1) 통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쉽지 않으나, 중국의 통화정책은 긴축보다는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단기 내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함.

2) 핫머니 규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며(1조 달러 초과, 2,000~3,000억 달러, 700억 달러 등 이에 대한 추정치가 다양), 핫머니에 대한 개념도 분명하지가 않음. 예를 들어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자금은 핫머니가 아니라고 판단됨. 핫머니 유입경로는 매우 복잡한데,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무역거래를 통하거나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중국인들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도 있을 것임.

질문 5: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이 내수중심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역흑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평가는?

답변 5:

중국경제가 앞으로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판단은 아직 이름. 중국의 산업구조 업그레이드로 인해 기계설비와 중화학 공업의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며 이에 따라 수출 의존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음. 내수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축률이 낮아져야 하며, 향후 사회보장체제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체제(학교, 병원 등)를 완비함으로써 소비를 촉진시켜야함.

2007년 중국의 무역흑자 규모는 2,622억 달러임. 2008년 무역흑자 폭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감소분은 10%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됨.